



目的과 手段

『학력사항』

- 경기고등학교 졸업
- 서울대학교 법대 졸업
- 서울대학교 대학원(법학 석사)
- 위싱턴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석사)
- 카이스트 대학원 (산업공학 석사)

『경력사항』

- 제17회 행정고시 합격
- 재정경제부 경제정책국 국장
- 제7대 재정경제부 제1차관
- 우리금융지주 회장
- 대통령실 경제수석비서관(이명박 정부)
- 국민행복기금 이사장
- 現) 제11대 전국은행연합회 회장



박 병 원

一. 高試本質論

고시는 오로지 自己確認으로서의 意味만이 重要할 뿐이다.

公職에 나아가 돈 보다는 名譽를 소중히 여기는 人生을 살기로 決心한 사람에게 고시는 中堅公務員 또는 法曹人으로서의 資格을 인정받는 것이기 때문에 高試合格은 目的이라기 보다는 차라리 手段, 나아가서는 하나의 出發點에 不過하고, 더 나아가 社會로부터의 인정보다도 自己自身の 能力과 忍耐力에 대한 스스로의 自己確認이 그 核心인 것이다.

고시의 길은 일단 들어선 이상 앞으로 빠져나가야지 뒤로 돌아서서는 한평생 할 일을 못다한 듯한 께름직한 마음의 짐을 안고 자신없는 一生을 살게 되

기 십상인 것도 바로 이런 까닭에서이다.

그리하여 고시는 자기자신과의 투쟁이요 孤獨感과의 싸움이므로, 반드시 합격한다는 信念이 없이는 神 “들”의 “특별한” 恩寵을 받지 않는 이상 이겨 낼 수 없는 투쟁이다. 自信을 갖지 않고는 이길 수 없지만 自身을 窮極의으로 確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기지 않으면 안되는 묘한 關係에 있는 것이다.

그러나 人生의 目的은 무엇인가?

二. 高試方法論

1. 迂迴生涯의 法則

民法總則 시험을 보는데 충적만 읽고 - 심한 사람은 충적 문제집 한 권만 보는 사람도 있더라 - 경제학 시험을 原論 한 권 보고 치르겠다고 덤비는 사람들이 神 “들”의 “특별한” 恩寵에 힘입어 가끔 합격되는 것은 참으로 痛嘆할 일이다. 많은 後學들에게 부질없는 期待를 심어줄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요행수를 바라는 사람들이 公職에 들어 와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완전히 자기 것으로 消化된 것. 열을 답안지에 옮기자면 백을 읽어야 한다. 남이 쓴 것을 읽는 것과 자기가 白紙를 메꾼다는 것은 전연 別個의 것이다. 어렵게 공부하면 쉽게 붙을 것이요, 쉽게 공부하려 하면 쉬 붙기 어려울 것이다.

2. 限界生産力 遞減의 法則

一回讀을 한 사람과 二回讀을 한 사람의 差異는 크지만 9회독과 10회독의 차이는 어느 정도일까? 時間의 按配로 畧과목에 고른 점수를 따내도록 作戰을 세우는 것이 賢策일 것이다.

3. 暗記와 理解

記憶과 暗記를 區別하는 경우에 있어서라도 암기는 결정적인 중요성을 가진다. 과거에 어느 분도 “先暗記, 後理解”의 秘法을 主張했지만, 迂迴的인 시험공부를 제일로 내세우는 필자도 그 정도는 아니지만 역시 암기 또는 기억 없이는 이해가 완전히 될 이치가 없다는 것은 강조하고 싶다.

4. 精讀과 多讀

평소에 精讀을 하고 시험 직전에 多讀을 해야 한다는 通說은 妥當하다. 결국 고시공부란 시험직전 짧은 시간에 全體를 훑어 보고, 기억을 되살릴 수 있

는 능력을 기르고, 資料를 整備하는 것에 不過하다는 선배님의 말씀도 절대 支持하는 바이다.

5. 單券主義가 원칙적으로 一應 妥當하지만 insert note로 補強해야 되며, 그 選擇에 있어서 非法律科目에 있어서는 특히 注意해야 되는 바, 筆者는 두 세 종류를 읽어보고 제일 마음에 드는 한권을 택하는 방법을 취했다. 이 또한 迂廻生涯의 法則과 補助카드(隣接分野의 知識)의 重要性에 대한 필자의 確固한 信念에서 나온 것이다. 언제나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6. 문제집 중심의 공부는 神 “들”에게 대단한 뇌물이라도 바쳐두지 않는 한 하지 말기를 바란다. 필자로서는 法哲學, 商法, 刑事訴訟法외에는 문제집을 아예 가지고 있지 않다. 우회생산의 有利性을 또 다른 意味에서 다시 한 번 強調하고 싶다.

7. 마지막으로, 機會費用의 개념을 아는 사람이라면 공부 이외의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은 바로 공부할 시간을 버리고 있다는 것임을 알 것이니, 하나를 얻었다는 것은 즉 다른 것들을 잃었다는 것이요, 하나를 잃었다는 것은 즉 다른 무엇인가를 얻었다는 것이다. 세상에 하고 싶은 일이 많겠지만, 모든 것을 한꺼번에 하려다가는 하나도 제대로 못한다는 것을 아래에서 確認해서 어리석은 前轍을 밟지 않아 주시면, 애초에 同學들의 기분 전환에 供하는 것 이상의 意味가 없는 이런 類의 글을 쓴 것이 조금이라도 더 보람있는 일이 되겠다.

三. 高試過程論

1. 애초에 法大를 들어가게 된 것이 별로 뚜렷한 비전이 있어서는 아니었고 다만 당시 法大가 제일 커트라인이 높았다는 사실과, 그리고 自身이 못 이룬 꿈을 長男에게서 이루어 보고자 하는 아버지의 간곡한 소원이 強要하는 대로 움직였을 뿐이다.

高教時節에는 語學(英, 獨, 佛, 日)을 爲始하여 歷史書, 哲學書, 文學書—사실 철학서적 濫讀에서 얻은 것 또는 남은 것은 별로 없는 듯하다—에 沒頭해 있었고, 그 뒤로는 어학과 歷史學에 대한 永遠한 魅力은 떨쳐 버리지 못하여 계속 그 分野에 서성거렸다. 그 成果가 우회생산의 법칙이 공부에도 적용

된다는 확고한 신념의 밑바탕이 된 듯 하다.

2. 그래서 처음부터 法學은 勿論 더구나 司試는 뒷전이었고, 아예 1年마을 語學完成에 몽땅 바치기로 하고, 學校講義는 빼먹어도 泰東古典研究所(任昌淳 선생님이 漢文을 가르치신다)에는 빠지지 않았고, 때로 한 두달씩 日語, 佛語의 사라져가는 기억을 保存하려고 애를 썼다.

그러나 대학 1年生の 공부하겠다는 決心이란 女子가 시집 안 가겠다는 말에 匹敵하는 無意味한 것이어서, 해 보고 싶은 게 너무 많았던—지금도 그렇지만—그 시절에 하나도 제대로 한 것은 없었던 것 같다. 아르바이트해서 용돈 마련하느라고 시간 뺏기고, 미팅, 데이트, 팔자에 없는 맥주 마시며 결국 그 돈 쓰느라고 시간 뺏기고, 기타 배우라, 연극 보라, 미술전람회 가라, 음악회 가라, 도무지 갈팡질팡이었다. 그러니 그 “어학완성”의 근사한 용대가리도 알량한 뱀꼬리에 그칠 수밖에 없는 것은 정해 놓은 이치였다. 여름방학 공부 계획은 閑山島旅行과 龜浦橋 부근에서 나룻배 다루는 演習, 그리고 그후 나룻배 한 대를 빌려서 부산서 삼랑진까지 洛東江을 거슬러 올라가며 좋은 곳마다 배대어 놓고 낚시질 하고 해엄치고 하면서 다 보내 버렸다.

1학년이 끝나갈 무렵에는 친구들이 司試공부를 始作했다는 所聞이 있어 약간 焦燥했지만 아직도 해 보고 싶은 일이 더 있어 마지막으로 이 겨울방학을 遺恨없이 놀고 2학년 때부터 공부하자하고, 오전에는 乘馬場에 가서 太宗臺 코스를 疾走하고, 오후에는 宋惠秀 선생님 아뜨리에에 나가서 되도 않는 油畫 그리노라고 고등학교 애들로부터 受傷를 무수히 당하고, 다시 武德亭에 올라가 바다를 바라보며 150m 거리에 놓인 과녁에 화살을 쏘는 재미로 석달을 강그리 놀아먹고 나니 “당분간” 恨없이 공부에 邁進할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었다.

3. 그래서 새봄이 되자 스스로 行動의 自由도 구속할 겸 경기고등학교 後輩집에 入住 가정교사로 들어가서 民法總則부터 始作해서 미우나 고우나 내 專攻이니 어찌하랴 하는 마음으로 法書를 읽어 나갔다.

하여간 未知의 分野의 책을 새로이 읽으면서 그렇게 재미가 없었던 것은 처음이었지만, 法大生の 所謂 “my way, my destiny”라는 특유의 諦念으로 견뎌 나가는 동안 알게 모르게 leg-al-oriented된 思考方式이 形成되어 가고 있었던지 슬슬 趣味가 붙어갔다.

사실 무슨 공부든지 안하면 모르고, 모르면 재미없고, 재미없으면 안하고, 다시 안하면 모르는 惡循環에 사로 잡히면 茫然自失하기 쉬운데, 결국 이를

깨뜨리는 방법은 경제의 악순환에 관하여 접근방식에 차이가 있는 것과는 달리 무작정 공부함으로써 알게 만드는 외에는 그 악순환을 깨뜨리는 방법이 없을 것이다.

4. 古典研究所에는 계속 나가고 있었고, 週에 한 두 번씩 黃鶴亭(社稷公園)에 올라 활을 쏘는 이외에는 2학년 1년은 별로 記憶날 만한 事件들이 없는 것을 보면 제법 공부를-뭐 알거나 알아 졌었을까마는-하는 흥내를 낸 것 같은데, 그렇다면 내가 왜 친구들보다 시험에 늦게 붙었을까 하고 곰곰 생각해 보니, 아니나 다를까 내가 6개월 내지 3년간 交際하여 기억에 남을 만큼 사귄 아가씨들이 두 손에 붙은 손가락만으로 헤아리기에 조금 벽찬데 그 過半數가 이 기간에 그 교체기간의 일부 내지는 全部를 두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비로소 깨달았다.

그러니 사실 2학년 1년간도 “公公然히”놀지 않았고, 너무 시간이 많이 들고 몸을 피곤하게 만드는-예컨대 洛東江?江旅行-方法을 취하지 않았을 뿐이지 “미련없이”공부에만 專念하진 못했던 것은 부인할 수가 없다.

합격기를 쓰면 異性交際에 관해서 한마디씩 言及해야 讀者의 氣分轉換에 供한다는 所期의 目的에 부합하는 것으로 생각들을 하는 것 같은데, 나는 너무나 些少한 이유로 좋아하기 시작해서 너무나 些少한 또는 엉뚱한 이유로 싫어하는 僻癖한 성격때문에-예컨대 이름속의 “혜”字가 “惠”字가 아니고 “蕙”字라서 좋아하다가 진달래와 철쭉을 區別하지 못한다 해서 싫어지는 경우와 같다-한결같이 成功的으로 이끌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 많은 不幸한 이야기를 다 할 수도 없고, 해 봤자 나만 욕먹을 내용인 것 같아서 번거로움을 피하기로 하거니와, 다만 合格의 그날 더불어 기뻐할 사람이 없다는 것은-부모님 들으시면 난리 나겠다-不幸한 일임을 뼈저리게 느꼈으니-하루 아침에 指向 잃은 動物이 될 때의 公허함을 상상해보라- 부디 남의 밥 콩을 크게 보지 마시고 한 우물을 熱心히 파시와 어리석은 前轍을 밟지 않으시기를 권하는 바이다.

2학기 부터는 좀 공부하기가 나을까해서 가정교사를 그만두고 正英舍라는 寄宿舍에 들어갔으나, 역시 4명이 한방을 쓰는 까닭에 스스로 방 霧圍氣를 支配할 만큼 고참이 되기 전에는 남의 페이스에 밀리기 쉬웠으나 여기서의 2년간이 좋은 선배와 벗들을 많이 얻은 대학 시절의 가장 소중한 일부분이 된 것 같다.

겨울방학이 되자 15回 司試에 一次라도 붙자 하고 부산 문현동에 있는 洋屋2층의 護明寺라는 절에 들어가 형편없는 반찬 외에는 快適한 환경에서 공

부를 좀 한 셈인가 하니 그 시절에도 역시 市內에 위치한 地政學의 영향 때문에 걸핏하면 사부작사부작 기어나와 놀다 들어가던 일이 기억난다. 이때 1차 시험을 위해 경제학 공부를 하노라고 南惠祐님의 價格論을 읽고 感銘을 받은 바 있어 法大를 졸업하면 商大 經濟學科에 學士編入하겠다고 떠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렇게까지는 못해도 이후 계속 巨視經濟理論, 貨幣金融論을 읽으며 法學을 非難, 經濟學을 讚揚하게 되었고, 이것이 行政考試에 눈을 준 重大한 계기가 된 것 같다.

5. 十月維新으로 司試가 5月인가로 연기되어 의외의 시간이 더 주어졌기 때문에 탐색전 삼아 2차까지 치르자고 준비를 하면서 1차시험을 쉽게 합격한 것까지는 잘 나갔는데, 학생회장 선거에 동창 張容國군을 도우기로 하고 公法學會 일을 일시 맡아 하기도 하노라고 작전에 差跌이 많았고-이것까지만 해도 좋았다-國際法學會를 맡고 있던 李鍾震군의 핏에 넘어가-사실은 그 好意로-Sesil, ISA에 관여하여 법대생 넷, 梨大 여학생 넷을 이끌고 日本 ISA의 초청으로 日本에 가서 東南亞 각국 대학생들과 국제문제 토론에 참여할 기회를 얻었는데, 그 복잡하고 어려운 出國節次를 밟노라고 결국은 1차시험은 포기하고 말았다. 法大에서 시험이 있던 바로 그날 옆 건물에 있는 국제법학 회실에서 토론 資料準備, 영어회화연습, 그리고 관계부처를 뛰어 다니며 旅券, 비자를 받아 내노라고 세월을 다 보내고, 그 결과로 그해 여름방학도 東京 남쪽의 도시들을 오르락내리락하며 놀다가 다 보내 버리고 말았다.

이 여행이 1학년 때 洛東江 溯江旅行에 버금가는 대학시절의 두 개의 하이 라이트였고 찬바람이 불기 시작할 때 거대한 초조감과 함께 이제는 정말 미련 없이 공부에 매진할 수 있을 것 같았고, 실제로 다음해 1,2月の 16回 司試까지는-2차시험이 자신도 없었으므로 1차부터 다시 보았다-오로지 시험준비에 전념할 수 있었다. 이 기간에는 성균관대학에 Latin어 강의 들으러 다니고, 外大의 Angela Mistura선생님께 Italian을 배운 외에는 外道를 한 것은 없으니 내 性格에 비추어서는 최소한도로 節制를 한 셈이었다.

16回 司試는 그 중 자신이 있었던 國史에서 도무지 답안작성 요령도 깨치지 못하고 있던 터이라 다닥다닥 붙여 쓰다가 다섯장을 못 채우고 결국 民法과 더불어 40점대를 마크, 다시 만회할 도리가 없었다. 이 시험에서 항상 존경해 마지 않는 벗 申熙澤 군을 비롯하여 同期 다섯 명이 빠져나가 뒤쳐진 동료들에게 대단한 충격을 주었다. 작년 여름 2차시험을 포기하여 자기가 얼마나 실력이 없는가를 뼈저리게 느낄 기회를 버린 것이 치명적인 失策이었다.

6. 그래도 정신을 못차려 새봄이 되자 허탈한 마음을 달래니 뭐니 하면서 法學을 버리고 文理大에 가서 中國語, 러시아어, 서반어 세과목을 나란히 A를 따오는가 하면 데이트도 다시 시작하고 활도 다시 쏘고, 이 過程에서도 3월에 15회 행정고시 1차를 통과하고, 4월에 다시 무모하게도 2차에 응했으나 이들을 못다 채우고 途中下車하고 말았다. 行政法에서 警察罰, 行政官廳의 權限의 代理와 委任, 두 문제는 모두 行政救濟法 中心으로 공부하는 司試生들에게는 非友好的인 것이었고 마음속으로 영성한 공부에 대한 悔恨의 피눈물을 철철 흘리며 行政學 시간이 되자 시험장을 뒤로 하고 학교로 가서 강의실에 들어가 버리고 말았다.

그래도 12월의 16회에 보자 하고 뻔뻔스럽게도 계획대로 1학기는 새로운 三國國語 공부만 하다가 여름방학부터 공부를 시작하려고 義동생 姜景文 군의 주선으로 통도사 자강암에 들어 갔다. 무더운 여름을 시원한 계곡 물과 太應스님의 잔잔한 말씀으로 식히며 여름방학으로는 처음으로 제대로 공부를 좀해보았다.

지난 시험에 피투성이가 된 反感에 이번에는 決判을 내겠다는 마음으로 2학기에는 경제과목 셋만 신청해 놓고 代理出席을 부탁해 놓고 부산에 내려와 약 3個月간 자신을 완전히 외부와 차단시키고 공부한 끝에 12월에는 제법 자신만만하게 上京, 시험에 응하였으나 이번에는 商法에서 相互計算이 역시 司試專攻者에게는 예상 밖의 문제여서 刑法에서 71.33을 따 내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한번 낙방하고 말았다.

7. 落膽하고 있을 餘裕도 없었다. 학기말 시험, 기말 논문, 그리고 대학원 入學試驗, 17회 司試가 계속 밀어닥칠 판이었다. 기말시험을 보고 논문들을 제출하고는 바로 또 부산에 내려가 내방에 틀어 박혀 司試 준비를 하는데 비로소 落榜의 의미가 切實히 배어오기 시작했다. 마음먹고 본 시험으로서는 최초의 낙방이었던 바 自信心에 중대한 타격을 가져야 때로는 반드시 합격할 수 있을까, 이렇게 살아야만 할 이유는 없지 않을까 하는 나약한 생각들이 꼬리를 물고 일어났다. 그럴 때마다 가까운 시장에 내려가 사람들이 모두들 열심히 사는 것을 보고 마음을 다스리곤 하였다.

2月 7日 上京하여 며칠간 방황 끝에 가까스로 가회동의 P독서실에 좋지 않은 자리나마 하나 마련하여 - 거의 생존수준이었다 - 20, 21日 대학원 시험을 치르고 25~28日 17회 司試를 마칠 때까지는 정신을 차릴 여유도 없었다. 刑訴를 치르고 평평 쏟아지는 눈 속에 시험장을 나설 때 최근 몇 달간 쌓

인 피로와 졸업식(26日)에도 참석하지 못한 서글픔이 갑자기 밀어 닥쳤다.

8. 司試 발표를 기다릴 여유도 없었다. 금년 1月 司試 준비중 17회 行試 준비중 17회 行試공고가 났을 때부터 그렇게 짧은 시간 밖에 주어지지 않는 것이 나에게서는 충격적이었다. 게다가 선택과목 변경으로 刑法을 버리고 生面 不知의 會計學을 새로이 공부해야 할 부담 위에 1차시험까지 다시 보아야 할 위험부담이 있었다.

그래도 대학원 시험 하나는 건진 것으로 2년의 猶豫가 주어진 것을 위안으로 마음을 가라 앉혀 낙방을 각오하고 작년에도 나가지 않던 학교 강의에도 꼬박꼬박 출석하면서 마음놓고 공부를 시작했다.

17회 司試 발표는 또다시 1점이나 되는 큰 차로 낙방한 위에 경기고, 법대 同期들이 대거 빠져 나가는 바람에 이제 초조하기는 커녕 될대로 되라는 체념상태로 오히려 淡淡하게 날자만 메꾸고 있었다. 1차시험에 할애할 시간이 없어서 이틀 공부하고 간 것이 오히려 不安을 加重하는 결과를 초래한 위에 시험을 열흘 앞두고 감기 몸살이 편도선염으로 확대되어 계속 밥을 제대로 먹지 못하니 완전히 pace를 잃어버리고 거의 뒷 자석에 앉은 薛東大 兄의 페이스에 말려 잠오는 약, 잠 안오는 약을 같이 먹어가면서 간신히 시험을 다 치러 낼 수가 있었다. 그래도 시험장을 나설 때 아 이제 끝났구나 하고 확신할 수 있었고 司試에 합격한 친구들이 마중 나와서 술을 사 주었으나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商法, 會計學에서 작전대로 長打를 치고(70.66,73.66), 나머지 과목, 예컨대 도무지 구름잡는 것 같이 漠然하던 行政學 등에서도 薛兄의 그 神妙한 예상문제에 힘입어 4등의 좋은 성적으로(64.77) 붙게 되었으나, 합격은 시간문제이기는 하지만 통계학에서의 失敗로 또 기다려야 되게 된 실형계는 죄송스럽기만 하다. 부디 지치지만 앉으시길 빈다.

9. 그리고 오히려 먼저 될 것으로 예상했던 많은 벗들이여, 반드시 된다는 확신만이 합격으로 이끌어 주오니 부디 이것만은 버리지 마시고 精進하시어 우리 모두 함께 모여 “옛디고 고운 날을 누리 봅시다”

마지막으로 그 동안 격려하고 돌보아 주신 분들에게 예의를 갖추어야 할 순서가 되었지만 다 例擧하기 어렵고 혹 누락으로 본의 아니게 恩人을 섭섭케 할까 두려워 따로 따로 뵈고 인사드리기로 하지만, 가장 어려운 時期에 힘이 되어주신 자형, 누님과 嘉會洞 경화당 최선생님께서는 다시 밝혀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人生的 窮極의인 目標은 무엇일까?